



...
이사람

기지촌 여성들의
자활 돕는 두레방

이성혜 원장

쉽다섯이라는 나이가 어울리지 않은 이성혜원장. 머리속으로만 이해하는 삶이 아닌 가슴으로 그녀들을 안고 싶은 게 그녀의 비램이다.

그녀들이 만드는 빵은 새 삶의 희망입니다

두레방을 찾던 날은 한반도에서 무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말복'이었다. 지표를 달구는 태양은 두레방을 찾는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의정부에서 다시 퇴계원 방향으로 20~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보통사람들의 선입견 만큼이나 먼 곳에 위치해 있다. 의정부 교도소를 지나 약 100m 가량의 군부대 철조망을 지나 '뺨벌'이라는 마을 입구에서 내렸다.

한번 빠지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의미에서 마을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는 자조섞인 푸념에 이곳의 아픈 세월이 녹아있다.

의정부 기지촌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 86년부터 시작

마을 입구에서 10분정도 걸어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두레방은 빼도 박도 못하는 답답한 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숨쉴 구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곳이다. 영어공부를 비롯해 탁아소, 놀이방, 공동식사 등의 프로그램은 모두 생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들이다. 또한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두레방 빵은 생활기금 마련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곳 여성들도 매춘이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명이다. 이곳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것이다. 기지촌의 사전적 의미는 '외국군 기지 주변에서, 외국 군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행위 따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의 동네'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기지촌은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닌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모여사는 곳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대부분 맞다.

두레방이 처음 문을 연 것은 86년이다. 문혜림씨가 주축이 돼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특별선교센터로 문을 열었다.

의정부시 기능동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주요 업무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다고 한다. 한국에 와 있는 미군들을 상대로 일을 하거나 동거하는 여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문혜림씨가 얼마전에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의 동생되는 문동환 박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정치적인 술수라는 등, 평민당과 연계가 돼 있다는 등의 소문이 퍼져 항상 경찰들의 감시를 받았었습니다. 또 이곳 여성들의 의심을 받기도 했구요.” 초창기 어려움을 얘기하는 원장 이성혜씨의 말이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주민들의 인정을 받게돼 지금은 의정부 뿐만 아니라 동두천에도 또 하나의 두레방을 운영하고 있다.

외형적인 확대 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다양해졌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그들의 답답한 사정을 들어주는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역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과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일의 특수성으로 제때 밥을 먹을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1시부터 2시까지의 공동식사 시간을 갖는다.

공동식사는 이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여유가 있으면 쌀이나 반찬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식사준비를 도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강제는 아니다. 자유롭게 참가해 함께 식사를 하면된다. 그간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두레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빵을 만드는 일이다. 두레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색시는 나태하기 때문에 혹은 매춘을 위해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매춘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른 직업을 원함에도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생계수단으로 몸을 파는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원장의 설명이다.



두레방은 놀이방, 탁아방, 공동식사, 두레방 빵 만들기 등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으로 그녀들의 삶을 돕는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심어주기 위해 빵 만들어

따라서 빵을 만드는 일은 자신들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그러나 빵판매 실적은 미비하다. 별도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만든다. 그래서 대학가 축제가 있는 5월과 9,10월이 가장 바쁜 달이고 그외는 단체나 교회 등에서 들어오는 주문에 의존하고 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은 벌써 몇주째 주문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빵을 만드는 날은 이곳이 시골벽적 합니다. 서로 도와주겠다고 팔을 걷고 나서거든요. 그리고 한마디씩 합니다. 빵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구요.”

그들은 빵 수요가 늘어나 자신들도 빵 만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클럽일이 아닌 다른 직업을 원하는 것이다. 현재는 제과학원을 통해 기술을 배운 현장출신-이들은 클럽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그렇게 부른다-여성 한명과 실무자 한명이 만들고 있다. 일이 바쁠때는 파트 타임 여성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350명 후원 회원들에게 직접 소식지를 보내는 이원장. 한달의 천원이라도 성의껏 보내주는 마음이 고맙다.



그러나 아직은 판매 실적이 미비해 빵판매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이들이 빵판매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식으로 제과점을 얻고 빵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최하 1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50명 정도의 후원회원들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법으로는 의정부와 동두천 두 곳의 두레방을 운영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래도 이 원장은 자신이 92년부터 이곳을 맡은 후로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쉰다섯이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도 그녀는 이 일이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는 기쁨으로 산다.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녀는 이곳을 하나님 주신 삶터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단 한명의 여성이라도 이곳을 찾는다면 계속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곳의 여성은 크게 세부류로 나뉜다. 클럽에 나가는 여성,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그리고 히빠리.

“히빠리라는 단어는 생소할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매춘도 할 수 없는 여성들은 술취한 미군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몸을 팝니다. 그중에는 나이가 예순이 넘는 여성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혼혈애가 딸린 여성, 매를 맞아 몸이 성치 않은 여성, 매일 폭행을 당하는 여성 등.

모두 끔찍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가슴속 깊은 곳의 분노를 내뿜는 이 원장은 그것이 그녀들만의 잘못인가를 묻고 있다.

“모두의 꿈은 미국 군인을 따라 본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여성은 그 소망이 더 간절하지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올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들어가도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해에 3천쌍 정도가 결혼을 하는데 그중 95%가 미국에서 이혼을



현재 두레방에서 만들어지는 빵은 주문제로 생산된다. 아직은 수요량이 많지 않아서 이곳 여성들의 일자리로 활용되는 것이 쉽지 않다.

당한다. 또 이혼당한 여성의 50%가 미국에서 다시 매춘을 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 미국사회에서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냐는 것이 이 원장의 항변이다.

사실 그녀는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 없는 갈등을 겪는다.

기지촌 생활을 하지 말라고 대책없이 말릴 수도 없고 그녀들의 희망인 미국에 가도 90% 이상이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지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두레방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녀들이 미국에 가서 대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하기 이전에 좀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현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옳다 그르다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따뜻한 시선이 필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미국인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때 고발센터를 이용해 정식적으로 위자료를 받

고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중 하나다.

한국사회가 그녀들을 편견없이 받아준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선택한 자활방법이다.

“그녀들이 이곳까지 흘러들어 온 것은 그녀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양공주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이들의 생활환경을 조사해 보면 결혼가정이나 지독히 가난한 집, 혹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녀는 사회적인 편견이 얼마나 심한가를 얘기했다.

“후원회비로는 운영이 불가능해 교회나 단체에 나가 강연을 합니다. 이곳의 생활을 알리기 위해 얘기를 하면 모두들 공감을 하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 얘기를 하면 모두들 외면합니다. 1,000원 정도의 돈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쓰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외에도 그녀가 가장 힘든 문제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자원봉사자나 방문객에게는 항상 처음에 몇가지 주의를 준다.

“절대 왜 이런 곳에 있느냐. 차라리 파출부라도 해서 돈을 벌지라는 질문은 금물이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도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면 경솔한 질문은 할 수 없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이방인의 방문을 끔찍히 싫어한다. 이 원장도 그들과 섞이면서 ‘우리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믿고 따르는 여성도 많이 늘어난 편이다.

“그녀들이 욕을 하면 함께 합니다. 그리고 호칭도 언니, 아줌마 등 편하고 친근한 마음이 들게 부릅니다. 그러나 가끔씩 튀어나오는 ‘이 여성들’이라는 언어가 아직은 그들과 함께 살기에는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속으로는 무엇이든지 이해가 가지만 아직은 마음속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 그녀 생각이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쯤

차근차근 일을 풀어나갈 생각이다.

“가끔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여성중에 어느날 생활적으로 호트러진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삶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회의가 들구요. 그러나 생각합니다. 그네들의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이 원장의 소원은 아마도 그네들의 지쳐버린 삶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일반인들이 깨우치는데 더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일 것이다. (글 김주희) 

잠깐만!

두레방을 돕는 일은 사실 알고보면 간단하다.

- 월 1,000원이상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일과 일시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이 있다.

- 금전적인 도움이 내키지 않는 사람은 영어교실, 놀이방, 공부방 선생님이 되는 자원봉사 활동도 있다.

- 또 빵을 주문할 수도 있고 냉장고, 복사기, 책상, 의자, 서류함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다.

- 빵 주문을 원하는 사람은 (0351)841-6946으로 하면된다.

- 일정액의 금액을 송금할 사람은 지로번호 7604454를 이용하거나 우체국, 조흥은행, 상업은행, 농협, 외환은행 등에 개설돼 있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 우체국:100834-0054993 이성혜
- 농협:201015-51-002626 이성혜

미군기지 주변에 자생하는 '기지촌'은 이곳 말고도 전국적으로 180여개가 있다.

